남루한 일상과 잊고 싶은 기억의 재현

한국 마스타푸드의 '스니커즈' 광고

마정미 | 광고평론가

일반적으로 식품광고는 '시즐'을 살리기 위해 저마다 입맛 당기는 영상과 소리에 집착해 왔다. 그러나 최근에 나온 한 광고는 이같은 문법을 파격적으로 깨 화제가 되고 있다. 사진이 발명된 이후 회화가 현실재현을 포기하고 큐비즘과 초현실주의로 갔던 것처럼 이 광고는 제품의 재현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달밤에 한 소녀가 흐느껴 운다. 사귀던 남학생과 헤어진 것. 옆에 앉은 친구가 과자를 주며 위로의 말을 건넨다. "공복에 한 통씩 먹어 봐." 다음날 눈부신 햇살 속에 두 소녀는 과자를 먹으며 테라스에 서 있다. "아직도 오빠 생각나니?" 소녀는 과자를 입에 넣으며 대답한다. "오~빠는 무슨!" 한 제과업체가 최근 내놓은 이 CF는 사랑의 상처와 그리움마저 상품이 가볍게 대체하는 현상을 여실히 보여준다. 움베르토 에코가 《대중의 영웅》(새물결)에서 그린 슈퍼맨의 위상은 이제 상품으로 대체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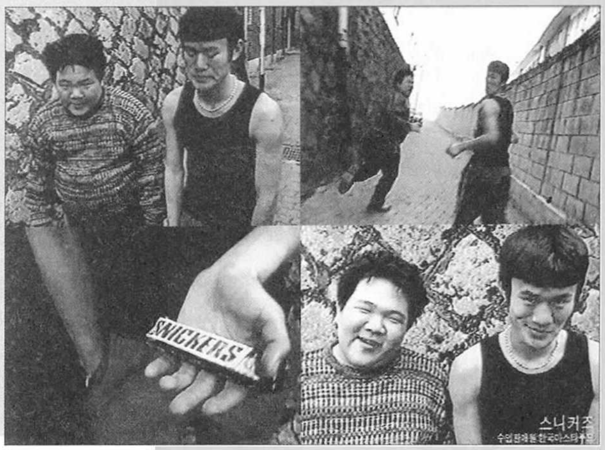
일반적인 광고문법에서 벗어나

사람들은 때로 상품 광고 텍스트에서 미학적 즐거움을 찾는다. 바야흐로 광고는 대중의 텍스트가 됐다. 모 스포츠 연예지는 주간 CF인기 순위를 발표할 정도고, 광고의 표현양식은 점점 다양해져 간다. 그 가운데 눈길을 끄는 광고 한편이 있다. 불유쾌한 경험이지만 중·고교시절 한번은 겪었을 '삥뜯기' 상황을 연출한 광고. 초코바 스니커즈의 CF다.

카메라가 인적 없는 골목길을 비추면 불량스러워 보이는 두명의 청소년이 초코바를 놓고 시비를 벌인다. "니들 싸우냐"는 얼굴 없는 목소리가 들리고 쫓기듯 두 사람이 달린다. 얼마 못 가 붙잡혀 담벼락에 세워진 두 사람. 히죽 웃는 그들에게 목소리는 "니들이 진정한 우정을 아냐" "초코바로 맞아 볼래"라고 말도 안되는 훈계를 늘어놓는다.

동시녹음이라 음향도 불분명하고 클로즈업도 없는 이 광고는 도대체 광고다운 구석이 하나도 없다. 무명의 모델, 스테디캠의 거친 화면, 일상의 한 장면을 그대로 담은 듯한 리얼리티가 이 광고의 표현양식이다. 굳이 분류하자면 텔레프레전스 광고, 다큐멘터리식 광고라 할 수 있다.

이 광고는 일반적인 광고문법에서 벗어나 있다. 제품제시를 위한 도상성(iconicity)은 시각적인 재현뿐 아니라 후각·청각·촉각의 재현도 포함한다. 때문에 식품광고인 경우는 시즐(sizzle)을 살리기 위해 저마다 입맛 당기는 영상과 소리에 집착해 왔고, 카메라로 잡히지 않는 질감을 살리기 위해 컴퓨터 그래픽과 조명의 효과도 십분 발휘해 왔다. 그러나 이 광고는 더 이상 재현에 관심이 없다. 마치 회화가 사진이 발명된 이후 재현을 포기하고 큐비즘과 초현실주의로 갔던 것처럼 이 광고는 더 이상 제품을 자세히 보여주거나 '맛있다' '향기롭다' 식의 접근을 시도하지 않는다. 제품의 이미지에도 관심이 없다.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만 떠벌이고 자기가 찍고 싶은 것만 찍은 셈이다. 그러나 시장조사 결과 제품과 광고 선호도가 껑충 뛰어올랐고 매출도 대폭 늘었으니, 이 광고는 분명 성공한 광고다.



스니커즈 광고는 도대체 광고다운 구석이 하나도 없다. 일상의 한 장면을 그대로 담은 듯한 리얼리티가 강조됐을 뿐이다. 이 광고를 보면 창작의 자유와 다양성을 인정하는 데 자본이 월등히 날렵하다는 생각이 든다.

'차이'의 '인정'과 사이의 존중

이 광고는 볼품없는 시멘트 블록, 담벼락, 공터, 싸움질하는 불량 청소년 등 남루한 일상과 잊고 싶던 지난날의 기억을 들춰낸다. 사실 인생은 빛과 어둠이 공존하는 법. 빌딩이 있으면 뒷골목이 있고, 도시가 있으면 변두리가 있다. 그런데 그런 인생의 이면을 그 무엇보다 '커머셜'한 광고가 그려내고 있으니 아이러니하지 않은가. 이 광고를 보면 창작의 자유와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에서도 자본이 훨씬 날렵하다는 생각이 든다.

이 시대의 키워드는 '사이'와 '차이'다. 나와 너의 차이를 인정하고 나와 너의 사이를 존중하는 것. 이것이 타자의 윤리학이고 탈중심, 탈식민주의인지 모른다. 철학자 김용석의 《문화적인 것과 인간적인 것》(푸른숲)과 정화열의 《몸의 정치》(민음사)는 접근방식은 다르지만 자율과 윤리, 공생을 다룬다. 하긴, 이 책들보다 먼저 포퍼의 《열린사회와 그 적들》(민음사)을 다시 읽어보는 것이 좋겠다. 아직 우리 사회는 열려 있지 않다. 스니커즈는 한때 방송심의 문제로 곤욕을 치렀는데 시리즈 중 〈진정한 사랑〉편은 여고생이 '감히' 교복을 입고 사랑을 말한다는 이유로 방송불가 판정이 났다.●